

# 당진시, 탄소중립 실현·디지털 경제 육성 선도

## ‘당진형 뉴딜 2.0 계획’ 추진...4천474억 원 투입



1 당진시청사 2 '당진형 뉴딜 2.0' 추진계획 보고회

충남 당진시가 탄소 중립 실현과 디지털 경제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당진시는 지난 4월 7일 김홍장 시장 주재로 탄소 중립 실현과 디지털 경제 육성을 위한 '당진형 뉴딜 2.0' 수립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었다.

당진형 뉴딜 2.0 계획은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 지역 사업과 연계성을 높이고 민·관 협력 강화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그린 뉴딜 분야 27개, 디지털 뉴딜 19개, 휴먼 뉴딜 7개 등 53개 사업이다. 총 4천474억 원 규모를 투입한다.

시는 이들 사업 중 시급성과 파급성, 한국판 뉴딜과의 정합성을 기

준으로 그린 뉴딜 4개, 디지털 뉴딜 6개, 휴먼 뉴딜 2개 등 12개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

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 뉴딜 핵심사업으로 중대 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수소생산기술 국산화 실현, 친환경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RE100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RE100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을 뜻한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스마트 농축수산업 육성과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조성을 목표로 4차 산업 육성 로드맵 수립, 평생 학습 통합플랫폼 구축, 충남형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당진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스마트축산 정보통신기술(ICT) 시범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휴먼뉴딜 분야에서는 그린 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 인력 양성과 청년 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넘어 당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당진형 뉴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판 뉴딜 분야 34개 공모 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598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인 융복합 스마트팜 클러스터 조성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07억여 원을 확보했다. ●



2